

## 노형욱 장관, “지능형 도시를 통해 미래 도시모델 제시할 것”

- 지능형 도시 국가시범도시 세종에 위치한 도시정보센터·건강 관리 현장 점검 -

- 미래 도시 선도모델인 시범도시의 성공과 체감도 높은 서비스 확산 강조 -

-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3일 세종시 지능형 도시 현장들을 찾아 지능형 도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, 관계자들을 격려했다.
- 먼저 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세종시 국가시범도시 조성 현장을 찾은 노 장관은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은 후,
  - “지능형 도시 국가시범도시는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이 총 집약된 세계적인 미래 도시모델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”면서,
  - “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세종시, 행복청, LH, 민간기업 등 참여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조속히 추진해 달라”고 당부하였다.
  - 아울러, 건설 현장의 안전과 고강도 방역관리를 주문하였다.
- 또한, 세종시 도시통합정보센터를 찾아 지능형 도시 도시운영 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, 센터 내 도시상황 관제실을 둘러보았다.
  - 이 자리에서 노 장관은 “앞으로 도시운영 방식은 CCTV 영상 정보의 활용 중심에서 교통·환경·에너지·방범·의료 등 다양한 도시 데이터를 연결하여 통합 활용하는 방식으로 발전될 것”이라면서,
    - “한국판 뉴딜 2.0을 통해 내년부터 지능형 도시 데이터 허브를 보급할 계획으로,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한 도시관리와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  - 특히, “카드결제 정보, 핸드폰 위치, CCTV 정보를 분석하여, 지능형 도시 데이터 허브 모델을 바탕으로 기존 역학조사 시간을 24시간

에서 10분 이내로 단축해 K-방역의 한 축이 된 지능형 도시 역학조사 지원시스템\*이 좋은 사례”라고 강조하였다.

\* 국토부·질병청 협업으로 개발('20.3), 현재 질병청·지자체에서 사용 중이며 범부처 협업으로 관심국가(22개국)와 역학조사지원시스템 수출협의 중

□ 이어, 세종시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“셔클<sup>1)</sup>”을 세종청사에서 직접 탑승하고, 남부보건지소에 설치된 건강 관리 서비스<sup>2)</sup> 등 시민체감형 스마트 서비스도 점검하였다.

1) 버스 정류장 위치에 관계없이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고, 실시간 호출이 가능한 교통서비스(세종시 1생활권 시범사업중, '21.4~)

2) 건강상태(신장·체중, 혈압, 체성분, 체력·자세)를 측정하여 핸드폰 앱을 통해 맞춤형 건강진단을 받고, 병원과 연계하여 주기적 관리 제공(9월, 2개소 시범운영 예정)

□ 마지막으로, 노 장관은 “지능형 도시를 혁신의 실험공간으로 활용하여, 모빌리티 혁신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, 교통·환경·에너지·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도시 서비스에 IT 기술을 접목한 체감도가 높은 스마트서비스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보급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2021. 8. 23.

국토교통부 대변인